

보도 일시	2022. 12. 21.(수) 09:00	배포 일시	2022. 12. 21.(수) 09:00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	책임자	과장 이정은 (044-203-2711)
		담당자	사무관 채창렬 (044-203-2710)

‘이상, 염상섭, 현진건, 운동주, 청와대를 거닐다’ 개막

- 염상섭, 현진건 선생 유족 참석해 특별전시 축하
-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초판본, 작가초상 원화 등 전시자료 총 97점 공개

북악산과 인왕산 일대를 수놓던 문인들의 고뇌와 열정이 청와대 춘추관으로 찾아온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국립한국문학관(관장 문정희)과 함께 12월 21일(수) 오후 3시, 청와대를 역사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두 번째 특별전시(프로젝트) ‘이상, 염상섭, 현진건, 운동주, 청와대를 거닐다’를 개막한다.

염상섭, 현진건 유족과 문단 원로 개막식 참석, 오은 시인, 황인찬 시인 전시 작품 낭송

이번 개막식에는 특별전 주인공인 염상섭과 현진건의 유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또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권영민 문학평론가를 비롯해 이번 특별전의 후원기관 대표인 김종규 삼성출판박물관장과 강인숙 영인문학관장이 함께해 축하를 전한다. 국회에서도 이용호 의원, 이용 의원, 황보승희 의원이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아울러 활발하게 활동하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젊은 작가, 오은 시인*과 황인찬 시인**이 전시작가의 대표작을 낭송하는 뜻깊은 시간도 마련했다. 『나는 이름이 있었다』로 잘 알려진 오은 시인은 운동주의 「별 헤는 밤」을 낭송한다. 별을 세듯 작은 존재들을 헤아리는 작가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픈 의미를 담았다. 『사랑을 위한 되풀이』로 대중에게 친숙한 황인찬 시인은 이상의 「거울」을 낭송한다. 우리의 삶과 내면을 비추는 거울인 문학을 통해 밝은 내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 오은 시인: 1982년생, 2018년 구상 시 문학상, 2019년 대산문학상 수상 등, 오디오클럽 <책읽아웃-오은의 옹기종기> 진행
- ** 황인찬 시인: 1988년생, 2012년 김수영 문학상, 2021년 현대문학상 시 부문 수상 등, 오디오클럽 <황인찬의 읽고 쓰는 삶> 진행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초판본 등 전시자료 총 97점, 특별전을 통해 한국 문학의 희귀자료 공개

특히 이번 전시는 국립한국문학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 문학 자료를 처음 공개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염상섭의 대표작 『만세전』 초판본을 비롯해 현진건의 『조선의 얼굴』 초판본, 이상이 장정한 김기림의 『기상도』 초판본,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초판본과 같은 희귀 자료를 선보인다. 책 91점과 작가초상 원화 4점, 사진 자료와 신문 자료 각 1점 등 총 97점의 전시자료를 통해 이번 특별전을 찾은 관람객에게 아쉬움 없이 알찬 순간을 선물할 예정이다.

‘춘추관 문학 특별전시’는 개막식 다음 날인 12월 22일(목)부터 2023년 1월 16일(월)까지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입장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관람 시간은 휴관일인 매주 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다.

붙임 전시자료 중 희귀자료 목록



구분	사진 및 작품명	비고
<p>염상섭</p>	 <p>염상섭 『만세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판본 - 염상섭의 대표작이며 한국 문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리얼리즘 소설로 꼽히는 작품 - 이번 특별전에서는 『만세전』의 중요 판본인 『신생활』 연재본을 비롯해 1924년 고려공사 단행본, 해방 후 개작된 수선사 판본이 함께 공개
	 <p>염상섭 『견우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판본 - 염상섭의 초기 삼부작 「표본실의 청개구리」, 「제야」, 「암야」가 수록된 작품집으로, 나혜석이 나팔꽃을 그려 책에 미적 가치를 더함
	 <p>염상섭 『해바라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판본 - 염상섭이 나혜석을 모델로 쓴 소설, 첫사랑 최승구가 요절한 후 변호사 김우영과 결혼한 나혜석이 신혼여행으로 첫사랑의 무덤을 방문한 것을 다룬 이야기
	 <p>신여자 2호 1920년 7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귀본(소장처 5곳 이하로 추정) - 나혜석, 김일엽, 김활란 등 1세대 여성 운동가들이 만든 잡지로, '신여성'에 대한 당시의 이중적 시선을 표현한 나혜석의 그림 <저것이 무엇인고> 수록

	 <p>현진건 『타락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판본 - 현진건의 초기 대표작 「빈처」, 「술 권하는 사회」, 「타락자」를 수록하고 있는 작품집
<p>현진건</p>	 <p>현진건 『조선의 얼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판본 - 현진건 대표 단편 소설 「운수 좋은 날」, 「고향」, 「B사감과 러브레터」를 수록하고 있는 작품집
	 <p>현진건 『무영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본 - 현진건이 부암동으로 이사한 후 창작한 역사소설로 동아일보 연재 후 단행본으로 간행
<p>이상</p>	 <p>『조광』 1936년 9월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귀본(이상의 대표소설 「날개」가 최초로 발표된 지면) - 이상이 직접 그린 삽화 수록

 <p>김기림 『기상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판본, 희귀본(약 200부 추정) - 이상이 장정하여 세련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
 <p>조선중앙일보 1934년 8월 8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귀본(이상의 대표 시 「오감도」와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최초 수록 지면) - 독자들의 비난 때문에 연재가 중단된 「오감도」 15호의 마지막 부분이 실려있으며 박태원의 대표소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이 이상이 그린 삽화와 함께 수록
 <p>『시와 소설』 창간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판본 - 이상, 김기림, 정지용, 김유정, 박태원, 백석, 이태준 등이 활동한 구인회 동인지 창간호로, 이상이 직접 편집과 장정을 맡았으며, 박태원의 「방랑장 주인」과 김유정의 「두꺼비」의 삽화를 그린 것으로 추정 - “어느 시대에도 그 현대인은 절망한다. 절망이 기교를 낳고 기교 때문에 또 절망한다.”라는 이상의 유명한 에필로그가 실려있음
 <p>이상, 박태원, 김소운 사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 김소운 기증자료, 원본 - 이상, 박태원, 김소운이 함께 찍은 사진으로 김소운이 친필로 사진을 설명을 달아 놓음

	 <p style="text-align: center;">윤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판본 - 윤동주가 1941년 출간하려 했지만, 제자의 신변을 우려한 스승 이양하의 만류로 발행하지 못하였다가 1948년 유고 시집으로 발행 - 이번 특별전에서는 초판본 외에 1955년 발행된 증보판, 문고판 등 주요 단행본을 한 자리에 전시
<p style="text-align: center;">윤동주</p>	 <p style="text-align: center;">백석 『사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판본, 희귀본(100부 한정판으로 발행, 현존 10부 이하) - 한지 및 고급장정으로 만들어진 자가본 - 한정 100부만 인쇄된 희귀본으로, 책을 구할 수 없었던 윤동주가 연희전문대 도서관에서 빌려 필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p style="text-align: center;">정지용 『백록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판본 - 윤동주가 가장 존경하는 시인으로 꼽은 정지용의 시집으로, 정지용은 윤동주 사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추천사를 써주었음